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 분석: 일간지의 사설 분석*

A Discourse Analysis of Leisure and Tourism in Mass Media

조 광 익** · 박 시 사***
Cho, Kwang-Ick · Park, Si-Sa

ABSTRACT

Based on Michel Foucault's works on power theory, this study analyzes leisure and tourism discourses appeared in mass media. Mass media both provides informations and knowledges to their reader and produces discourses, which contribute to evoking modern topics to think about. In this context, authors analyze mass mediated leisure and tourism discourse of editorials appeared at major daily newspapers, Chosun Ilbo and Hankyore for ten years, from 1993 to 2002. The research questions are: how do the mass media construct leisure and tourism issues in editorials an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spapers? what are the effects of leisure and tourism discourses on making modern subjec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research problems that should be further solved.

핵심용어 : 여가, 관광, 매스 미디어, 담론, 권력, 이데올로기, 알튀세, 푸코, 사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B00702)

**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e-mail: kicho@c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smiletour@cheju.ac.kr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분명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과거의 봉건 왕조사회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면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의 행사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된 방법이였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에 의거하여 이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와 감시를 통해, 말하자면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구성원의 자율적인 통제에 기반하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나 특정 집단에 의한 직접적이고 원시적인 폭력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질서의 유지란 개인을 종속시켜 사회의 諸규범을 충실히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근대사회가 개인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학교와 가정을 통한 교육과 사회화, 직장에서의 노동규율의 부과와 군대에서의 훈련 등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군대에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우리 사회의 속설은 강제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화와 종속의 단적인 표현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겨레> 2005년 11월 1일자 참조). 강제적인 방법을 통한 개인의 통제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개개인들의 내면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권력이 개개인들의 정신에 작용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세련된 종속의 방식이자, 효율적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방법이다. 규범의 부과를 통한 사회 통제 방식에 있어 담론과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력은 지식의 형성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바로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서 미디어 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스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디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담론과 이데올로기 생산의 주체로서 미디어는 사태의 진실과 무관할 수 있다.

오늘날 매스 미디어는 여가 관광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이다. 신문이나 방송 등과 같은 매스 미디어는 담론의 생산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가와 관광에 개입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가 민주화되고 각종 규제가 해제되면서 억압적 정책 수단이 사라져버리면서 더욱 증대된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의 전면 자유화 이후 예전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담론의 생산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용자-관광자를 규율하는 것이다.

여가와 관광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여가 관광 실천에 있어 미디어 담론은 막중한 역할을 한다. 매스 미디어에서 여가와 관광을 어떻게 보도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여가 관광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 오늘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현상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즉 매스 미디어 담론은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등 관광 실천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권력장치이자 이데올로기 장치로 볼 수 있다. 미디어는 여가 관광 담론의 생산을 통해 관광의 장에 개입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인 수용자-관광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여가와 관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한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며, 매스 미디어도 그러한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통해 미디어는 개인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결국 매스 미디어 수용자-관광자는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하게 된다.

매스 미디어에 의해 생산되는 여가 관광 담론은 담론생산 주체에 따라 담론의 내용이 달라진다. 때문에 담론 생산의 주체에 따라 여가 관광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매스 미디어, 특히 신문의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신문 사설에서 여가 관광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알튀세와 푸코의 이론을 토대로 신문의 사설에 등장하는 여가 관광 담론은 무엇인지, 담론의 대상과 영역을 살펴보고, 담론생산 주체에 따라 여가 관광 담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매스 미디어가 어떻게 수용자-관광자를 규율하는지를 분석한다.

II. 알튀세와 푸코의 담론 이론

1. 담론과 이데올로기

이성을 매개로 한 인간의 수많은 삶의 양태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담론들이 각 시대를 특징짓는다(이정우, 1997). 가령 1980년대에는 '민주화'라는 거대 담

론이 지배적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건강’, ‘취업’ 등 개인주의에 기반한 실존적 담론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담론은 달라진다. 담론이라는 용어는 우선 말과 글을 떠올리게 하며, 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의미를 지시하거나 의미를 가지는 모든 것”을 담론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담론이 진실을 생산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담론은 “권력의 도구이자 동시에 결과이며, 장애물, 제동장치, 저항점, 그리고 정반대되는 전략을 위한 출발점”이다(Foucault, 1976, 114). 권력과 지식이 서로 결부되는 것은 담론에서이다. 그러므로 담론이란 “힘을 실은 말”이다(조흠, 1997).

넓게 보면, 담론은 “이데올로기 실천이라는 넓은 국면에서 벌어지는 의미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구성”으로 간주된다(Macdonell, 1986, 14). 이는 담론의 개념을 ‘의미의 사회적 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든 제도적인 실천’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가 항상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참되고 중립적으로 여겨지는 것도 편견을 가진 것일 수 있다.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담론은 순수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을 하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힘있는 사람의 얘기는 항상 그럴 듯하게 들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진리로 통용되며, 따라서 지식으로 취급되기 십상이다(조흠, 1997). 실제 쓰이는 말과 글, 언어의 의미가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담론은 사회적이다. 한 단어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는 것이다(Macdonell, 1986, 23-24). 따라서 언어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의미체계인 것은 아니다. 담론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문제를 제기한다

담론이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통해 구성된 의미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갖는다. 담론에는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으며,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형식의 하나이다. 이데올로기란 “세상에 대해서 사고하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원용진, 1996, 200). 폐쇠(1982)는 담론이 언어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이데올로기 영역의 한 부분이며,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대립적으로 설정된다고 주장했다(Macdonell, 1986, 재인용). 즉 한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학교, 감옥 등과 같은 사물에 의해 드러나고, 담론과 행위와 관행을 통해 드러난다. 또 이데올로기는 제도(의회, 행정부, 사법부, 경찰, 학교제도 등)들과 상징(문양, 의식, 예절, 의복 등)에 의하여 드러나기도 한다. 이데올로기가 그 특수한 기능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해내는 영역은 언어이다.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말과 글, 담론이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외관상 합리적인 방식

으로 암암리에 권력을 정당화하는 사고"라고 할 때, 이데올로기들은 오직 담론의 힘을 빌어서만 이러한 표면적으로 합리적인 정당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Reboul, 1994, 59). 즉 이데올로기는 언어에 의해서 권력으로 하여금 폭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데올로기는 폭력을 우회적인 위협, 암묵적인 최후수단의 상태로 유보하고 축소시켜 놓는다(Reboul, 1994, 41).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일부로서 사회가 현실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2. 알튀세의 이데올로기론

마르크스와 달리 알튀세(1971)는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환상이거나 계급의식과 대립되는 허위의식이 아니며, 의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표상체계'라고 주장한다(이진경, 2005, 355-363). 무의식과 같이 이데올로기는 영원하며, 어떤 사회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없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와의 단절을 통해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대상은 결코 투명하지 않으며, 오직 이데올로기 속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 때문에 알튀세는 "이데올로기(이데올로기 일반)는 역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다양한 제도와 장치들을 가로지르는 투쟁을 통해 대립적으로 형성된다(Macdonell, 1986). 이 투쟁들은 '최종심급'에서의 계급투쟁과 연관되어 있다(Althusser, 1965; Rojek, 1985).

알튀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효과를 갖는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적 장치를 통해 존재한다." 즉 담론과 이데올로기는 공히 물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게으름은 죄악"이라는 담론의 사회적 통용은 노동의 윤리의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재생산되게 된다. 즉 생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데올로기(장치)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요구하는 윤리와 가치, 규범을 만들어내어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원용진, 1996). 또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실천을 통해 작동하는 물질적 존재이며, 특정한 실천을 지속화하는 장치가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SA)이다.

또 알튀세는 이데올로기가 "현실적 존재 조건에 대한 상상적 관계의 표상"이라고 한다(이진경, 2005: 360). 즉 이데올로기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나 현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 관계'를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관계'로 상상하고 오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튀세(1970)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interpellation)한다. 이데올로기는 주체(subject)를 대상으로 한다. 주체가 없다면 이데올로기는 전파될 수도 없고 확산될 수도 없다(원용진, 1996). '너는 누구'라고 누군가 날 불렀을 때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며, 이러한 호명의 주체에 복종하여 그가 지시하는 바를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마치 이데올로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며 ... 개인 주체들은 스스로를 복종이 아닌 자유스러운 참여, 즉 실천을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원용진, 1996, 202).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개인들 가운데서 주체들을 '징집'하거나 ... 우리가 호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매우 정확한 작용을 통해 개인들을 주체들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작용'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혼란 경찰의 일상적인 호명과 같은 유형 속에서 그것을 표상할 수 있다. "헤이, 거기 당신!" ... 호명된 개인은 뒤돌아볼 것이다. 이 단순한 180도의 물리적 선회에 의해서 그는 주체가 된다. ... 왜냐하면, 그는 호명이 '바로' 그에게 행해졌으며, '호명된 자가 바로 그(다른 사람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Althusser, 1970: 118-119)

이데올로기에 복종함으로써 주인이 되는 과정이 이데올로기의 주체 형성 과정이다. 즉 알튀세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이 주체로 구성되어 가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무력화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효과 속에서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있다.

3. 푸코의 담론이론

근대 사회에서 권력은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권력과 지식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거나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상식적인 명제를 생각해 보라(조흥, 1997). 그러나 그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권력은 지식을 창출하며 지식은 권력에 봉사한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식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식과 상호관련이 없는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관계를 상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달라진다." 특정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권력이다(Foucault, 1975, 57, 327; 김부용, 1990; 김성언, 1990). 지식은 인간의 인식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권력의 효과이다.

개별화가 권력과 지식의 산물이라고 할 때, 권력과 지식의 또 하나의 산물로 푸코는 담론을 들고 있다. 담론은 지식을 형성하며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권력의 작동 자체가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통제기술은 담론과 얽혀 있고, 힘을 가진 말로서 담론을 통하여 권력은 만들어지고, 이러한 통제는 또다시 담론을 형성하는 권력-지식 순환관계를 형성한다(조흠, 1997). 그런데, 여기서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 어떤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지식은 권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가장된 힘'일 뿐이다(조흠, 1997). 진리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며, 사회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에 따라 진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를 매개로 한 담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권력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와 일반 서민의 말 한마디의 무게는 같지 않다"(조흠, 1997). "권력을 실은 언어"인 담론이 지식을 가능케 한다.

또한 담론은 우리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구가 된다. 근대권력이 폭력이 아니라 규율과 감시를 통해 사회를 지배한다고 할 때 담론은 규율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담론과 지식은 상호협력 관계에 있다. 세상에 요란하게 떠도는 말은 지식으로 취급되기가 쉬우며, 그 지식은 또 우리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담론은 항상 하나의 말로만 성립될 수 없다. 같은 말을 하는 무리인 담론구성체(discursive formation)를 필요로 한다. 학자들의 담론구성체인 학회가 존재할 때에 학자들의 말은 힘을 받는다. 신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담론구성체가 되며, 이러한 이유로 신문이라는 미디어 담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게 된다.

이처럼 푸코는 담론이 결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담론의 생산(또는 억압)은 어느 특정한 사회조건에서 항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담론은 항상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겨루는 싸움터라는 얘기다. 푸코는 우리가 규율사회에 살고 있고, 근대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지식에 의해 주체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 자체는 결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의미창출의 당사자가 아니며, 오히려 담론적 실천의 산물이자 권력관계의 산물일 뿐이다. 담론은 언어(말)에 의한 지배, 언어(말)에 의한 통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규율을 형성하는 수단이자, 종속의 도구가 된다. 권력과 지식의 산물로서, 담론이 근대적 주체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체가 의미창출의 당사자가 아니라 권력-지식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푸코의 반인간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III. 매스 미디어와 여가 관광 담론

1. 권력 이데올로기 장치로서의 미디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는 사회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지각을 형성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현실을 형성하는 작업에 참여하며, 그 발전의 논리와 방향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현실의 한 부분이다. 미디어는 현실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것이다(제갈춘기, 2001). 미디어는 권력과 대중들 사이에 설정하는 관계에 의해 이미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대중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을 개별화시키고 그들에게서 말할 권리를 빼앗아버림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Reboul, 1994).

미디어는 담론을 생산하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장치이다(원용진, 1996; Rojek, 1995). 실제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과 <한겨레>를 구독하는 사람은 매우 상이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알튀세(1970, 1971)의 주장처럼, 미디어는 사회적 지배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국가권력은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사회를 지배할 수는 없다. 즉 '억압적 국가장치'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폭력은 늘 예비되어 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억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폭력의 사용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 이러한 동의와 설득을 위해 미디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미디어가 세계와 연결된 창과 같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제·활용할 수 있다면, 권력은 자신의 의도대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권력이 노골적으로 소위 '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에 기사의 보도 여부를 통제하고 기관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며 언론을 통제했던 것도 미디어를 통해 사회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인우·심산, 1998; <한겨레>, 2005. 3. 4).

그러나 더 이상 미디어가 정치권력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강명구, 2001; 김훈, 2001; 장경섭, 2001). 매스 미디어는 담론을 생산하는 힘, 여론을 만드는 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힘을 가지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매스 미디어는

그 자체로 권력이 된다(최정호·강현두·오택섭, 1990). 매스 미디어가 사회를 지배한다. 매스 미디어의 메시지는 부지불식간에 수용자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가령 TV의 경우에 1분에 25~30회씩 바뀌는 TV 화면의 변화가 사고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화면의 잦은 변화는 어린이들이 매 장면을 피상적으로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화면에 정신이 팔려 텔레비전의 메시지는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한다(강준만, 1999). 이것이 비단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도 자녀가 대체로 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거처럼 먹을 게 없어 산아제한을 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산아제한 이데올로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포어로 대표되는, 미디어를 통한 산아제한 운동의 영향 때문일지 모른다(박찬수, 2006).

강준만은 백루한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람들은 매체 테크놀로지에 지배를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매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들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매체를 소비하는 것이 매체에 의해 강요당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매체가 그들의 일상적 삶에 얼마나 편재해있으며 또 그들의 완전한 지배 하에 놓인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대체해버렸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강준만, 1999b, 248).

푸코(197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대는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감시와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규율을 담당하는 것은 학교나 언론, 미디어, 지식인, 정치가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매스 미디어는 '사회를 보는 창'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공기"로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담당하는 담론 생산 장치이다. 근대 사회의 권력장치이자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매스 미디어는 담론 생산을 통해 수용자-주체를 생산한다. 매스 미디어는 수용자를 '호명'하여 미디어 메시지의 내용대로 주체를 형성한다. 즉 미디어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동일시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담론의 특정 시각에 동일시함으로써 미디어가 제공하는 특정한 주체로 구성된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논조를 따르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 담론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 사고하고 표현하는 준거들을 제공해 준다(김창남, 2003; 원용진, 1996).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행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을 주체로 구성한다.

2. 매스 미디어와 여가 관광 담론

미디어,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과 같은 매스 미디어는 여가 관광의 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텔레비전의 책 소개 프로그램에 소개된 책은 즉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출판사들은 매스 미디어에 신간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텔레비전과 신문에 주말 여행지로 소개된 관광지는 곧 방문자들의 발길로 분주해진다. 실제로 1994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전국적으로 문화답사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매스 미디어는 여가 관광에 대한 담론을 생산한다. 대중들의 여가 관광에 대한 인식은 매스 미디어 담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때문에 개인의 여가 관광에 대한 시각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다. 그것은 미디어 담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여가 관광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담론의 변화에 따라 여가 관광에 대한 시각은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가 관광이 삶의 질과 관련된 그 자체의 목적을 갖는 것이라기 보다 일종의 도구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것은, 매스 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가 관광을 통한 수입증대와 고용창출 등과 같은 경제 발전·산업적 담론과 향락, 오락, 유흥 등과 관련된 소비 담론이 지배적인 언론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매스 미디어가 여가 관광 담론을 생산하지만, 여가 관광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거나 담론이 모든 여가 관광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담론의 주제와 내용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매스 미디어가 여가 관광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문제와 결부하여 부차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만큼 여가 관광의 '뉴스가치', '보도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은 여가 관광 문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생산된다. 노동시간의 단축, 주5일 근무제 실시, 여가를 중요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여가 관광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은 증가한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조광익·이돈재, 2006).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오히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은 미디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여가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상반된 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여가 관광 담론은 당파성을 띠게 된다는 의미이다. 여가 관광 담론의 생산 또한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이다.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휴식', '번영', '축제', '평화', '화합' 등의 메시지는 현존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미봉하거나 덮어버리는 효과를 유발하여 지배질서 유지와 지배체제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가 관광의 장에서도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낸다. 매스 미디어는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특정한 관광정책의 입안을 촉구하기도 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주장하며 관광개발을 반대하기도 한다. 또 관광종사자들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광객의 관광행태를 비판하기도 한다. 가령 관광지나 휴가목적지에서의 휴가질서, 바가지 상환, 싸늘이 쇼핑, 보신관광, 섹스관광, 골프관광, 관광 과소비 행태 등을 주제로 한 담론들이 대표적이다. 매스 미디어의 이러한 여가 관광 담론은 수용자-관광자들에게 특정한 규범을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수용자-관광자를 규율하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가 여가 관광 담론을 통해 수용자-관광자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미디어는 권력장치이자 이데올로기 장치가 된다 (Rojek, 1995).

IV. 연구방법론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 신문으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선정하였다. <조선일보>는 국내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일 뿐만 아니라, 1) 가장 보수적인 논조를 보이는 신문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계층이 주 독자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겨레>는 1988년에 창간된 중앙 일간지로 가장 진보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독자층을 갖는 신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상반된 이념적 지향을 대표하는 신문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으며,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여가 관광 담론의 주제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매체간의 여가 관광에 대

1) 미국의 *Editor and Publisher*(online)가 2000년 발표한 세계 100대 신문(발행부수 기준) 순위를 보면 조선일보가 10위(237만부), 동아일보가 13위(215만부)로 나타났다.

한 보도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가 관광 담론의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신문매체를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1997년을 기점으로 전후 10년 간의 신문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즉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3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이다. 이는 특정한 시간적 변화에 따라 여가 관광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IMF 전후 10년은 사실상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집권기간과 일치하여 IMF 관리체제를 전후로 한 비교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IMF 시기를 기점으로 삼은 것은 IMF 구제금융이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이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및 작동방식이 크게 달라졌을 뿐 아니라, 여가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신문의 다양한 기사 유형 중에서 사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실은 "지면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해설기사와 달리 그 신문사의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며, 그 영향력은 독자-수용자에게 매우 크고 특히 "일부 유력 신문들의 사실 영향력은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손석춘, 1997, 126). 그리고 해설, 칼럼 등 다른 기사 유형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분석기간이 길어 기사량이 매우 방대해져 여가 관광 담론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2.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한국언론재단이 구축·운영하는 종합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를 이용하였다. 카인즈 검색은 메뉴방식을 통하여 '관광', '여행', '해외여행', '여가', '레저'를 주제로 사실만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사실 중에서 검색어가 '문화관광부' 등과 같이 고유명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거액을 들여가며' 등과 같이 무관한 경우, 그리고 사실의 전체적인 맥락이 여가, 관광, 여행, 레저 등의 주제와 거리가 있는 등 여가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71건의 사실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V.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 분석

1. 여가 관광 담론의 주체와 대상

신문 사설 속에 나타난 여가 관광 담론의 대상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크게 여가 관광 행태, 관광정책, 관광개발, 금강산 관광, 관광산업, 관광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담론주체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따라 여가 관광 담론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²⁾

'금강산 관광'은 논란이 많은 담론의 대상이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차이가 많은 <조선일보>와 <한겨레>라는 두 담론 주체에 따라 금강산 관광 담론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설에 나타난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담론은 대체로 몇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미규정, 둘째, 정경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 셋째, 금강산 관광 지속을 위한 정부의 지원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금강산 관광 시행 초기에는 두 신문사의 담론은 모두 금강산 관광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태, 서해 교전 사태 등을 거치며 <조선일보>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어간 반면, <한겨레>는 시종일관 긍정적인 담론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미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겨레>가 금강산 관광을 민족화해와 협력, 평화사업으로 보는데 반해서 <조선일보>는 금강산 관광을 철저하게 한 민간 기업의 사업으로 보고 있고,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부족한 외화조달 수단으로 이용"(1998년 8월 25일) 한다는 등 노골적이고 부정적인 담론이 많다.

또한 담론의 주체에 따라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조선일보>(2001. 6. 21, 2001. 7. 2)는 "남북관계에서 완벽한 정경분리는 있을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을 비판하고, 정부가 금강산 입산료 결정 문제, '금강산 관광세칙' 제·개정 문제, 현대의 금강산 독점개발권 등의 문제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개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2) 매스 미디어에서 여가 관광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특히 담론의 주체에 따라 담론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익·이돈계(2006)를 참조.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는 정경분리 원칙 준수 여부가 문제라기보다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금강산 관광이 '민족사업'이자 '평화를 위한 투자'이므로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남북협력기금 지원, 금강산 관광경비 일부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컨소시엄 참여 등)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김정일 정권 돕기"(2002. 1. 22), "이성 잃은 '금강산' 퍼붓기"(2001. 7. 2), "김정일 정권에 현금 갖다주기"(2002. 1. 24)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답론은 금강산 관광이 남북 화해의 상징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한 민간기업의 사업이므로 명분에 얽매이기보다는 채산성이 없으면 중단되어야 하고 공기업 참여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평화를 위한 투자, 평화사업이라는 관점에서(2002. 1. 22)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금강산 관광도 사업인 만큼 채산성을 따져야 하지만, 관광이 지속됨으로써 남북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쟁위험이 줄어들면, 단순한 손익개념을 뛰어넘어 '평화유지 비용'의 개념으로도 생각하는 차원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2001. 5. 23)고 주장한다. <한겨레>의 답론은 <조선일보>와 달리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생각해야 하고, "평화를 위한 투자의 개념을 빼면 금강산 관광은 물론, 남북 간의 어떤 사업도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2002. 1. 22).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금강산 관광 답론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한겨레>는 금강산 관광을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적 사업, 남북 화해를 도모하는 평화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한겨레>의 지향에 따라 남한 관광객 감금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나 서해교전이 발생하였을 때, 적자누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도 일관되게 금강산 관광이 재개·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한겨레>는 관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만은 전폭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광산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두 신문 모두 금강산 관광을 '관광사업'으로서보다는 '정치적인 사안'이자 '대북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여가 관광 담론의 영역과 특성

신문 사설 속에 나타난 여가 관광 담론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여가 관광 행태와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매스 미디어가 수용자-관광자를 훈육하고 규율하는 권력장치이자 이데올로기 장치로 기능하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가 관광 행태와 관련하여 신문 사설에 나타난 담론은 크게 관광 과소비 문제와 저질·퇴폐 관광 행태, 여가·휴가문화, 공중도덕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설 담론은 대체로 매우 비판적이고 수용자-관광자를 교양하고 훈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IMF를 전후한 10년 동안 여가 관광 행태를 비판하며 수용자-관광자를 훈육하는 사설은 19건인데, 이중 보수지인 <조선일보>가 16건(84.2%)으로 <한겨레>의 3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신문이 여가 관광 행태를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용자-관광자를 교양하고 훈육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관광 과소비

관광 과소비 담론은 대체로 “관광 과소비가 안정을 해친다”거나 “관광 과소비가 경상수지(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한다”, “자기 분수를 아는 관광지출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판적 내용이다. 즉 “무턱대고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이 유행이고 외국제품 선호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판이니 국제수지가 펑크나지 않을 수 없다”(조선일보), 1997. 3. 30)거나 한국인 해외 여행자의 소비액을 문제삼는 식의 담론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신문 사설 담론에서는 여행수지와 관광수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는 상당 부분 유학생들의 지출, 즉 유학수지 적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데, 사설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관광 과소비 비판은 여행수지가 아니라 유학수지를 제외한 관광수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실제로 1993년의 경우 유학수지를 제외할 경우 관광수지는 2억 달러 이상의 흑자로 반전된다.

한국인 해외여행자의 소비액을 비판하면서 한 신문은 한국인 해외여행자의 소비액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우리의 관광지출 규모가 “미국인 여행객의 2배가 넘는데 이르러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쓰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관광객들은 “해외관광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며, 자기 분수를 아는 관광지출이 가정이나 국가경제에 어떤든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아는 국민”이라며

(〈조선일보〉, 1993. 8. 8), 마치 한국인들이 해외관광의 의미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러한 관광지출이 가정이나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묘사하여 수용자-관광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어 “내실있는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 전세계를 누비며 천한 돈도가네 관광이나 일삼는 국민이라는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선일보〉, 1993. 8. 8).

특히 IMF 구제금융 사태에 직면해서는 “거품경제 시대의 사고방식에 쫓아 안일하고 방만한 행동패턴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위기를 자초하였다며 “가계의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해외여행과 수입사치품을 선호해왔다고 결과론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조선일보〉, 1997. 11. 24). 또 “불과 1년 전만 해도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가 경제가 조금 풀렸다고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가고 값비싼 사치품을 사들인다면 또다시 나라꼴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상수지 적자는 물론 겨우 회복세에 있는 경제를 다시 중태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조선일보〉, 1999. 7. 15)고 우려한다. 그리고는 “한국인 전체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조선일보〉, 2001. 1. 9)고 비판하고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자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1997. 11. 22).

또 신문 사설 담론은 불로소득자들을 포함한 고소득자들의 “골프여행과 해외유람” 등과 같은 ‘무분별한 호화·사치 행태’를 비판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지키려는 각성이 앞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한겨레〉, 1998. 6. 15).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신문 담론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여가 관광 대상(주제)에 대한 담론에서는 해외여행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장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여행은 건문을 넓히고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이다. 우리도 이제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여행서비스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조선일보〉, 1995. 6. 17)

“해외관광은 곧 국민적인 외교행위이자 국민의 행복권 추구행위 ... 해외관광의 보편화 일반화야말로 국제화 세계화의 전제조건 ...”(〈조선일보〉, 1995. 9. 13)

“우리 국민이 외국 관광에 나서는 것 자체를 억지로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보다 많이 유치해서 관광수익을 늘리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조선일보〉, 1996. 9. 10)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과거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가 마치 선진국권에 진입한 것처럼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하고 ‘세계화’를 표방함으로써 지나친 과열소비와 해외여행 붐을 유발한 ‘정책선전의 오류’를 범한 적이 있다. … 국민이 소비를 늘리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좋지만 정도가 지나쳐 경제의 거품현상이 되살아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성장은 벽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조선일보》, 1999. 6. 30)

“어른들은 향락·보신관광에 과다쇼핑을 해대고 청소년들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각종 연수를 가다보면 지출되는 외화도 엄청나지만 우리 사회의 들뜸과 거품 현상은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조선일보》, 2001. 1. 9)

즉 “해외관광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IMF를 계기로 모처럼 흑자를 기록한 관광수입이 또다시 해외관광 러시로 적자로 돌아선 작금의 현상에는 문제가 있다”(《조선일보》, 1999. 7. 15)는 식으로 IMF 이후 관광수지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여행에 비판적 담론을 보이고 있다.

2) 저질·퇴폐 관광

관광행태에 관한 신문 담론의 또 다른 주제는 소위 말하는 “어글리 코리언”이니 “보신관광” 등과 같은 ‘저질·퇴폐관광’에 대한 것이다. 사실 담론에서는 특히 해외여행자들의 부정적 행태에 많은 비판을 가하며 직접적으로 수용자·관광자에 대한 훈육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광의 목적이 건문을 넓히고 휴식을 취하는 차원을 넘어 보신관광, 포르노 관광, 쇼핑관광 등으로 변질돼 돈 버리고 망신 사는 행위 역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조선일보》, 1999. 7. 15), “우리의 해외관광도 이전 천박한 ‘문도가네’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조선일보》, 1996. 7. 22)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행자 개개인이 교양 있는 신사숙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조선일보》, 1995. 6. 17).

“‘세계화’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킬 줄 몰라 ‘어글리 코리언’의 인상을 심고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간을 지키지 않아, 차례를 기다릴 줄 몰라, 큰소리로 마구 떠들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는 주의를 받는 일도 허다하다.”(《조선일보》, 1995. 6. 17)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살게 되었으면 염치도 알고 정결하게 기품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도 가릴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은 그만두고 이

제 '더러운 한국인'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다. 무언가 대대적인 교육적 대책이 시급하다."(《조선일보》, 1996. 7. 22)

이처럼 신문 담론에서는 수용자-관광자를 교육과 훈육을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 담론에서는 "여행자들의 의식수준"이 제자리라거나, "해외여행자들이 지켜야할 사항은 곧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이다"(《조선일보》, 1995. 6. 17)고 강조하며, 관광객들의 행위가 일상생활에서든 관광지에서든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자 예의범절이라는 가정 속에서 여행지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행동까지 규율한다.

그런데 신문 담론의 이러한 관광객 행태 비판은, 관광객들이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거나, 사회(공동체)의 화합(평화)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 주로 이러한 행태가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고 이유로 비판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갖가지 추태를 부리는 바람에 '어글리 코리아'의 나쁜 이미지를 심고 돌아오는 사례가 아직껏 근절되지 않았다(《조선일보》, 1995. 9. 13)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나라망신도 보통이 아니다", 한국인들의 "무지막지하고 야만적인 추태관광"과 "보신관광"으로 "한국인"이란 간판을 내리고 싶기까지 하다(《조선일보》, 1996. 7. 22)는 식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여가 관광 문화

관광행태와 관련하여 사설 담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은 "휴가철의 무질서" 등과 같은 여가 관광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휴가철의 무질서'(《조선일보》, 1995. 8. 1)라는 제목의 사설과 '우리는 이 정도 밖에 못되나'(《조선일보》, 1997. 7. 29)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혼잡과 무질서", 공중도덕 실종행위를 비판한다. 즉 여행지에서의 "쓰레기와 공중변소 문제",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의 불법 취사, "유홍지"(sic)에서의 패싸움 등 무질서와 치안상태,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상혼"과 "지나친 호객행위" 등을 비판하며(《조선일보》, 1995. 8. 1), "우리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는 국민인가"(《조선일보》, 1997. 7. 29)하고 탄식하고 있다. "아직도 피서지의 무질서로 해서 레저와 휴양문화의 정착은 요원한 실정이다"고 비판한다(《조선일보》, 1995. 8. 1).

“피서철을 맞아 해변과 강, 그리고 계곡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자연오염과 훼손행위가 전에 없이 크게 늘어나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불법 취사행위가 곳곳에서 거리낌없이 자행되는가 하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늘던 자리나 주변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이런 모든 현상은 공중도덕이란 것 자체가 아예 실종된 가운데 이 시각에도 산과 강, 바다가 무방비상태로 오염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우리는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국민인가. 환경에 관한 한, 우리는 구제받기 어려운 사람들인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된다는 것,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지에서 취사를 하면 벌에 저촉된다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암체질을 자행하며 국토를 더럽히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조선일보〉, 1997. 7. 29)

신문 사설의 담론에서 여가 관광 문화, 휴가문화에 접근하는 태도는, 쾌적한 자연환경 보호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여가 관광문화, 휴가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여가 관광행태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울 것이므로 “이제는 피서지의 문화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다간 우리의 휴가문화 정착이 요원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식이다(〈조선일보〉, 1995. 8. 1).

또한 광주 비엔날레, 일산 국제꽃박람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등과 같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어린 아이들이 전시물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차고 심지어 부수고 깨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관람 에티켓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전시물을 제대로 또 충분히 감상하기 위해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수용자를 계몽하고 있다(〈조선일보〉, 1997. 9. 2).

4) 공중도덕

신문 사설의 담론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친절, 질서, 청결 등 공중도덕과 ‘주인의 자세’에 대한 강조이다(〈조선일보〉, 2002. 5. 31; 〈한겨레〉, 2002. 2. 20).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친절, 질서, 청결 등 공중도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닌 “주인의 도리”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친절하게 대하고 질서와 청결함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이다. 이처럼 수용자-관광자를 훈육하는 담론은 진보신문으로 평가되는 〈한겨레〉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외국인들에게 유난히 친절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의 유난스런 불친절에 던더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1993. 10. 23)

가령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이하 ‘월드컵’이라 약칭) 대회에 대해서는 “나라의 체면이 걸린 문제”(《조선일보》, 1997. 7. 20)로 “나라 망신의 해”가 되지 않도록 “충력을 쏟아야” 하는 ‘국가적 행사’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과는 “까다로운 손님”들의 “취향을 배려하는 것은 ‘주인’의 도리”라거나, “손님을 따뜻하게 맞고 편하게 해주는” “주인의 역할” 등 ‘완벽한 손님맞이 자세’를 강조한다(《조선일보》, 1998. 7. 15, 1999. 9. 29, 2002. 5. 31; 《한겨레》, 2002. 2. 20).

나아가 “세계인의 축제를 주최하는 영예로운 ‘주인’의 자리에 선 우리로서는 완벽한 손님맞이가 경기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조선일보》, 2001. 12. 3, 2002. 5. 31).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승부나 ‘후자 월드컵’보다 세계인의 가슴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이다. … 여기다 친절하고 믿을 만하고 질서 있고 청결한 인상을 보낼 수 있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한겨레》, 2002. 2. 20)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을 의식하여 일본과의 “총체적 비교”가 시작됐다(2002년 6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월드컵 2002: 한·일, 총체적 비교는 시작됐다’였다), 외국의 취재진이 “축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에 관해 비교의 관점에서 취재 할 것이므로 ‘관전 및 응원문화’, ‘축구장 밖의’ ‘일상’ 등이 모두 “비교대상”이라며 “좀더 친절하고 좀더 깨끗이 하고 좀더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손님 맞을 체비”가 안되어 있다며 그 대책으로 “외국인을 대하는 친절교육과 함께 글로벌 에티켓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선일보》, 1999. 9. 29). 또한 월드컵 대회가 “우리의 ‘속살’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회”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구실”이 중요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주문하기도 한다(《한겨레》, 2001. 12. 2).

친절, 청결, 질서가 신문 사설 담론이 강조해마지 않는 덕목이다. 이는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임하여 한국이 외국인들로부터 좀더 좋은 평가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용자-시민들을 규율하는 것이다. 월드컵을 우리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여 상호 이해를 넓히는 '지구촌 축제'로서보다는 남들의 이목을 더 중요시하여 수용자-시민들을 일정한 틀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 사설의 여가 관광 담론은 수용자-관광자를 혼용하여 근대적 관광객-시민을 생산하며, 사회의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전달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 특히 매스 미디어는 여가와 관광의 장에서 관광자를 양식있는 시민, "교양있는 신사숙녀"로 만들기 위해 관광자의 여가 관광 행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 수용자들이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순응하지는 않을 것이고, 수용자들에게 불만과 저항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김훈, 2001). 그렇지만 매스 미디어가 부지불식간에 수용자에게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에서 매스 미디어는 근대 사회의 권력장치이자 이데올로기 장치로 기능한다고 하겠다.

VI. 결 론

신문을 비롯한 매스 미디어는 직접적인 대화보다 설득력은 약하지만 그 전달영역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광대하다(Fill, 1995). 이러한 매스 미디어는 수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매스 미디어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규정하고 구성한다. 매스 미디어 담론은 지식과 권력의 산물이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담론은 무정형의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연구는 근대 사회에서의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매스 미디어에서는 여가 관광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즉 '매스 미디어에서는 여가 관광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디어가 단순히 여가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情報源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 여가 관광 관련 주제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담론화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에서 담론화된 여가 관광 대상(주제)은 어떠한가, 담론의 주체에 따라 여가 관광 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담론화되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여가 관광 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가 관광 담론이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어떻게 수용자-관광자를 규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10년 동안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여가 관광 담론을 분석하였다. 1993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이 분석대상이었다.

분석결과 매스 미디어에서 담론화된 여가 관광 주제는 관광행태, 관광정책, 관광개발, 금강산 관광, 관광산업, 관광자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론 주체인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따라 담론화되는 주제(대상)는 물론이고 담론의 내용이 상이하였다. 나아가 IMF 관리체제를 전후한 사회적·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담론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동일한 담론 주체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시기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담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문 사설의 여가 관광 담론이 수용자-관광자들을 훈육하고 규율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신문 담론은 여가 관광에 대한 사실이나 진실을 보도한다기보다는 진리와 무관한 지식을 생산하며, 이러한 지식과 담론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관광자를 직접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하는 이데올로기 장치, 권력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에 대해 모든 수용자-관광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순응하지는 않을 것이고,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여가 관광 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과 지배적 기능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매스 미디어 담론은 사실이나 진실과 무관하다. 매스 미디어는 지식과 담론을 생산하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포한다. 이런 점에서 매스 미디어는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장치이자, 사회적 지배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의 부과와 이의 내면화를 통한 구성원의 자율적인 복종의 방식이 근대사회의 작동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스 미디어는 자본주의적 규범을 유포하고 권력장치이며, 표상체계로서 이데올로기가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에서 영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스 미디어 담론은 수용자를 종속시키고 주체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장치라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신문의 사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설이 그날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신문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담론을 분석하는데 적합하기는 하지만, 사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신문 담론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즉 매스 미디어의 총체적인 여가 관광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사설 이외에도 칼럼, 논단, 기획·연재, 해설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장르가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2001). 탈세조사와 언론개혁에 대한 단상. 『비평』 5, 22-29.
- 강준만(1994). 『대중문화의 결과 속』. 서울: 한샘출판사.
- _____(1996). 『고독한 대중』. 서울: 개마고원.
- _____(1997). 지식인의 생명은 '자기성찰'. 『인물과 사상』 4, 153-203.
- _____(1998). 신뢰의 정치를 추구하는 노무현. 『인물과 사상』 8, 85-99.
- _____(1999a).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햇볕정책 죽이기. 『인물과 사상』 12, 123-156.
- _____(1999b). 『대중문화의 결과 속』. 서울: 인물과사상사.
- _____(2000). 『권력변환: 한국 언론 117년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 _____(2003). 『대중문화의 결과 속 II』. 서울: 인물과사상사.
- 김근(2001). 개혁, 가르침 또는 참회. 『비평』 5, 30-34.
- 김부용(1990). 미셸 푸코에 있어서 지식과 권력. 『미셸 푸코론: 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상진·오생근 외, 59-108.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삼용(1999). 지역주의 망령의 배후, 언론. 『인물과 사상』 12, 157-176.
- 김성언(1990).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과 비판의 의미. 『미셸 푸코론: 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상진·오생근 외, 124-192.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영호(2005). 수구언론이 선동한 가짜여론. <한겨레>, 2005년 10월 27일자.
- 김창남(2003).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훈(2001). 언론의 부자유가 언론의 자유다. 『비평』 5: 48-53.
- 박찬수(2006). 베이비붐과 고령화시대. <한겨레>, 2006년 4월 10일자. 22면.
- 손석춘(1997). 『신문 읽기의 혁명』. 서울: 개마고원.
- 손석춘(2002). 『부자신문 가난한 독자』. 서울: 한겨레신문사.
- 원용진(1996).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 이광래(1989). 『미셸 푸코』. 서울: 민음사.
- 이인우·심산(1998).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서울: 한겨레신문사.
- 이정우(1997). 푸코와 우리. 『세계사상』, 1(1).
- 이진경(2005). 『철학과 굴뚝청소부』(개정 증보판). 서울: 그린비.
- 이충용(2005).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 서울: 이제이북스.
- 장경섭(2001). 정치개혁을 위한 언론개혁. 『비평』 5, 59-65.
- 정준영(1990). 알튀세르와 지식, 과학, 이데올로기. 『사회비평』, 4.
- 제갈춘기(2001). 언론의 건강문제 틀지우기: 신문의 담론분석을 통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광익·이돈재(2006). 매스 미디어의 여가 관광 보도 태도. 미출판원고.

조흥(1997). 『인물과 사상』. 서울: 개마고원.

최정호·강현두·오택섭(1990). 『메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최일남(2001). 언론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비평』. 5, 66-74.

홍세화(2006). 한겨레의 초심은 어디에? 〈한겨레〉, 2006년 2월 10일자.
 〈한겨레〉, 2004년 6월 25일자.
 〈한겨레〉, 2005년 3월 4일자. (6면) “남산인데…그 기사 빼시오”.
 〈한겨레〉, 2005년 3월 4일자. (6면) 눈엣가시는 폐간 미운털은 광고탄압.
 〈한겨레〉, 2005년 8월 12일자. “엑스파일이 아니라 이견회 게이트”.
 〈한겨레〉, 2005년 11월 1일자. 군대가 순응적·가부장적 사람 '만든다'.

Althusser, L.(1965). Pour Marx. Paris: Editions La Découverte. (이종영 역 [1997]. 『맑스를 위하여』, 서울: 백의.)

Althusser, L.(1970). Positions(1964~1975). Paris: Editions Sociales. (김동수 역[1991].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 솔출판사.)

Althusser, L.(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London: Lew Left Books. (이진수 역[1991]. 『레닌과 철학』, 서울: 백의.)

Babbie, E.(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 Wadsworth. (고성호 외 역[2002].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그린.)

Foucault, M.(1975). Surveiller et punir. Paris: Gallimard. (오생근 역[1994].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Foucault, M.(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1. Paris: Gallimard. (이규현 역 [1990]. 『성의 역사 I: 얌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Foucault, M.(1982). The subject and power. In H. Dreyfus & P.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214-232. The Harvester Press. (서우석 역[1989]. 주체와 권력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울: 나남출판.)

Macdonell, D.(1986).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Blackwell. (임상훈 역[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Reboul, O.(1980). Langage et idéologie, Paris: P.U.F. (홍재성·권오룡 역 [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Riffe, D., Lacy, S., & Fico, F. G.(1998). Analyzing media messag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배현석 역[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Rojek, C.(1985).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 Rojek, C.(1995). Decentring leisure: Rethinking leisure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최석호·이진형 역[2002].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서울: 일신사.)
- Smart, B.(1986). 그람시와 푸코: 진리의 정치학과 헤게모니의 문제. 푸코 외,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서울: 새물결.
- Urry, J.(1990). The tourist gaze, London: Sage Publications.

2006년 1월30일 접수
2006년 4월 20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 심사 畢

K C I